

# 코로나19와 동남아 대응

최경희(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 발표내용

- 1.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
- 2. 세계 속의 동남아 현황
- 3.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의 아세안 지역적 대응
- 4. 동남아 국가별 대응: 시기별 대응, 문화적 특징, 정부책임성
- 5. '사람중심' 신남방 정책의 지역적, 글로벌적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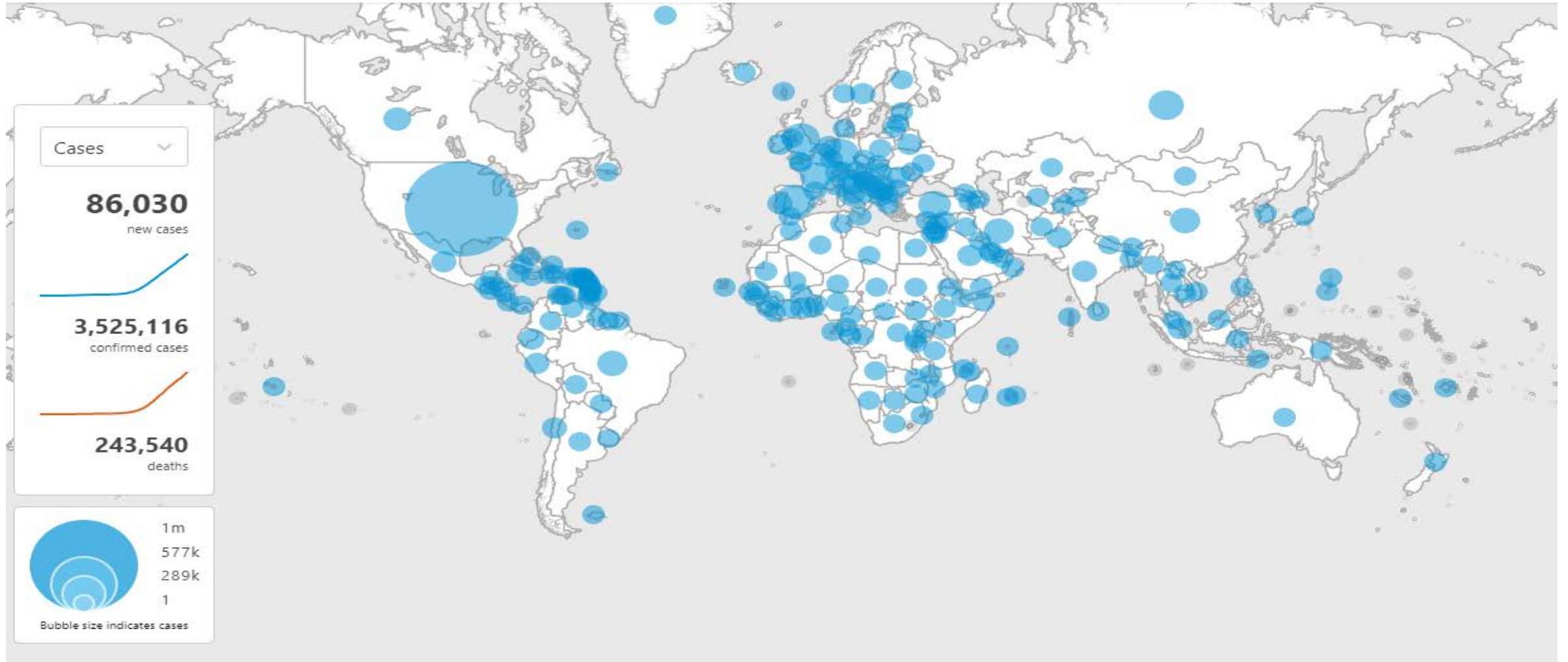
# 글로벌, 지역, 국가 그리고 개인

- 글로벌, 지역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거버넌스 민주주의 질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시민'으로서 개인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논의
- 이 코비드19사태가 있기 전부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 담론이 전개되었음. 신생민주주의가 아닌 미국과 유럽의 위기
- 2018년 미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검토하는 조사실행(실행기관: George W. Bush Institute, Freedom House, Penn Biden Center), The Democracy Project.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진단”
- 2020년 Journal of Democracy 창립 30주년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 논쟁(2015년 25주년 기념 쟁점의 연속): 미국과 유럽의 서구 민주주의 위기, 권위주의 국가들인 중국·러시아·이란의 지역적 국제적 영향력증대라는 두 측면의 글로벌적 현상의 의미
- Covid19 세계 대유행은 이러한 모든 차원의 거버넌스의 위기를 드러내고 있으며, 어떻게 글로벌, 지역, 국가 단위 '공적 제도의 책임성'을 재확립시켜야 할지를 집중시킴.
- 시민으로서 '개인'은 이러한 '공적제도'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는데 역할: 좋고, 정의롭고, 공공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가짜뉴스 범람 속에 숙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민

# 사회적,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체 복원 논의 공적제도의 문제해결능력: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 **'혼돈의 세계질서'**: 코로나19로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 갈등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증명/ 현재의 미국과 중국 어느 국가도 글로벌 리더십의 모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둘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음.
- **아세안의 고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 을 해야 하는 상황
- 코로나19 대응으로 한국형, 중국형 그리고 그 밖의 유형(?미국, 유럽, 그 외)
- **대안으로 떠오른 방역 K모델의 함의**: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에 기반한 민주적 리더십' 의 가치를 드러내 주는 것임.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능력도 한국정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의 하나임
- 한국 정부와 한국 시민의 신뢰 및 협력모델도 방역K모델의 핵심적 요소임.
- 정부의 수직적 수평적 책임성 논의는 '시민', '유권자' 영향력이 내재된 개념임.
- **기버넌스 민주주의의 질 강조**: 기존 민주주의 강조는 '대표자 선출'의 자유와 경쟁성을 강조했다면, 이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논하는 '민주주의의 질' 담론으로 더욱 다각화 다차원 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속의 동남아 현황



Source: World Health Organization | [Download Map Data](#)

**Globally**, as of **2:00am CEST, 5 May 2020**, there have been **3,525,116 confirmed cases** of COVID-19, including **243,540 deaths**, reported to WHO.

# 세계 속의 동남아 현황

## Case Comparison

WHO Regions

Europe



1,566,684

confirmed cases

Americas



1,477,447

confirmed cases

Eastern Mediterranean



219,827

confirmed cases

Western Pacific



153,869

confirmed cases

South-East Asia



74,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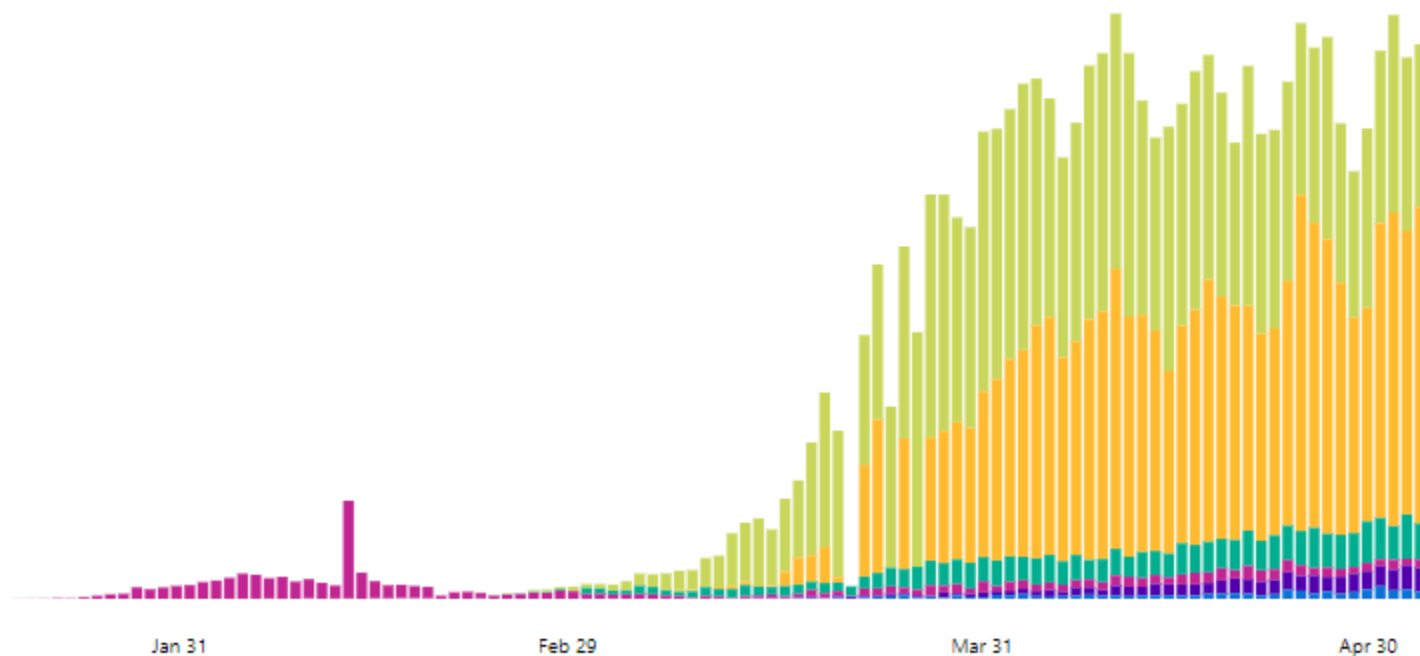
confirmed cases

Africa



32,570

confirmed cases



Source: World Health Organization

# Covid19의 동남아 현황

	총확진자 (명)	사망자(명)	사망건수/백만명 당	총검사건수	검사건수/백 만명당	총확진건수/ 총검사건수
Brunei	138	1	2	14,610	33,396	0.94%
Cambodia	122	0	0	12,611	754	0.96%
Indonesia	12,071	872	3	121,547	444	9.93%
Laos	19	0	0	2418	332	0.78%
Malaysia	6,383	106	3	213,220	6,588	2.99%
Myanmar	161	6	3	9,037	166	1.78%
Philippines	9,677	637	6	130,889	1,194	7.39%
Singapore	19,410	18	3	143,919	24,600	13.4%
Thailand	2,988	54	0.8	227,860	3,264	1.31%
Vietnam	271	0	0	261,004	2,681	0.10%
총계	51,240	1,694				

Worldmeters의 5월 6일자 발표 기준으로 정리: 총확진자 51,240명, 총사망자 1,694명

2019.12.08.

2020.01.13.

2020.01.23.  
2020.01.26.  
2020.01.30.

2020.03.02.

2020.03.09.  
2020.03.11.

2020.03.21.  
2020.03.24.

2020.04.24.

중국 우한 첫 확진자 발생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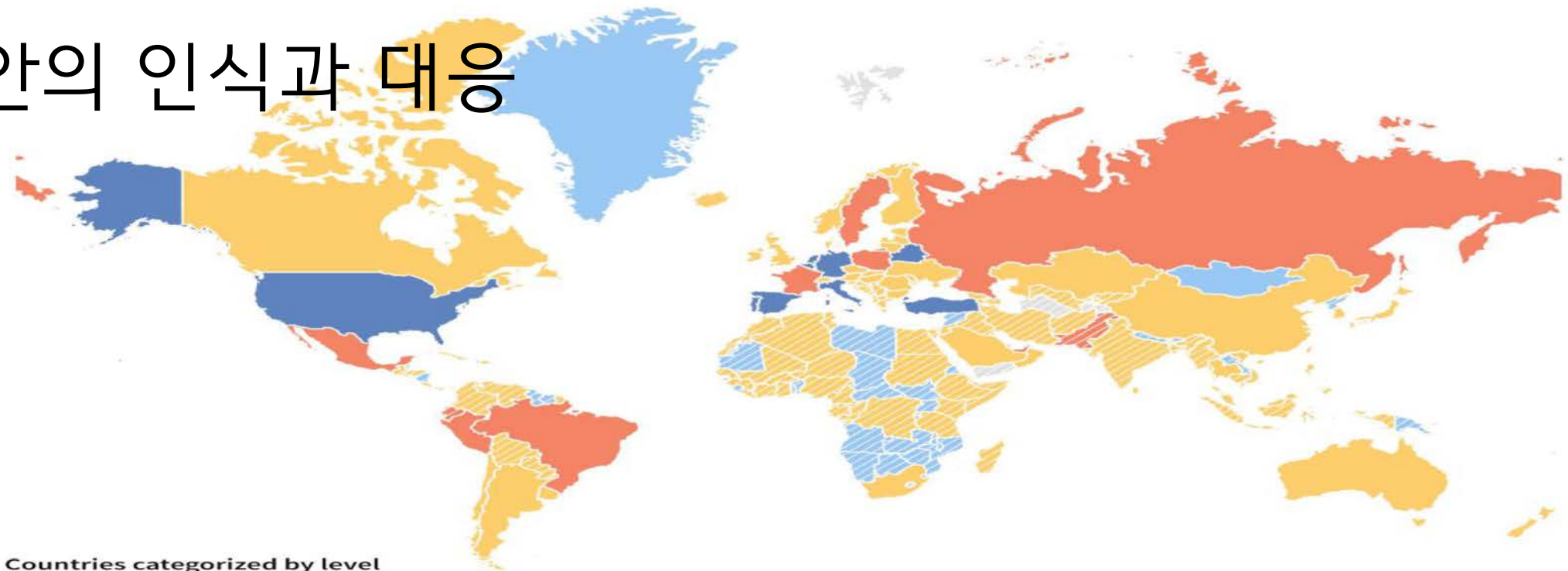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아세안, 코로나19 확산세 감소 선언

# 아세안의 인식과 대응



Countries categorized by level of COVID-19 transmission

A) Reporting < 100 cases with slowly increasing rate of transmission

B) Reporting steadily increasing or stabilizing rate of transmission

C) Reporting rapidly increasing rate of transmission

D) Reporting decreasing rate of transmission

E) Insufficient information available

▨ Limited capability to detect and control spread



Table 1. Summary of ASEAN Member States' country categorization, IDVI value, and COVID-19 cases per 1,000 population as of 28 April 2020

Country	COVID-19 Category As of April 3 <sup>1</sup>	COVID-19 Category As of April 7 <sup>1</sup>	COVID-19 Category As of April 9 <sup>1</sup>	COVID-19 Category As of April 15 <sup>1</sup>	COVID-19 Category As of April 17 <sup>1</sup>	COVID-19 Category As of April 21 <sup>1</sup>	COVID-19 Category As of April 24 <sup>1</sup>	COVID-19 Category As of April 28 <sup>1</sup>	IDVI Score	Doubling Time (days) <sup>4</sup>	Confirmed COVID-19 cases per 1,000 Population
Brunei	B	B	B	B	B	B	B	B	0.763	37	0.349
Cambodia	B	B	B	B	B	B	B	B	0.355	21	0.008
Indonesia	B	B	B	B	B	B	B	B	0.563	15	0.037
Laos	E	E	A	A	A	A	A	A	0.355	13	0.003
Malaysia	B	B	B	B	B	B	B	B	0.761	26	0.206
Myanmar	E	E	A	A	A	B	B	B	0.448	12	0.003
Philippines	D	B	B	B	B	B	B	B	0.545	19	0.078
Singapore	B	B	B	C	C	C	B	B	0.878	8	4.065
Thailand	B	B	B	B	B	B	B	B	0.711	29	0.044
Vietnam	B	B	B	B	B	B	B	B	0.626	31	0.003

(refer to additional file for country categorization globally)

\* Categorized based on suspected cases of COVID-19. Confirmed COVID-19 cases count & cases per 1,000 population unavail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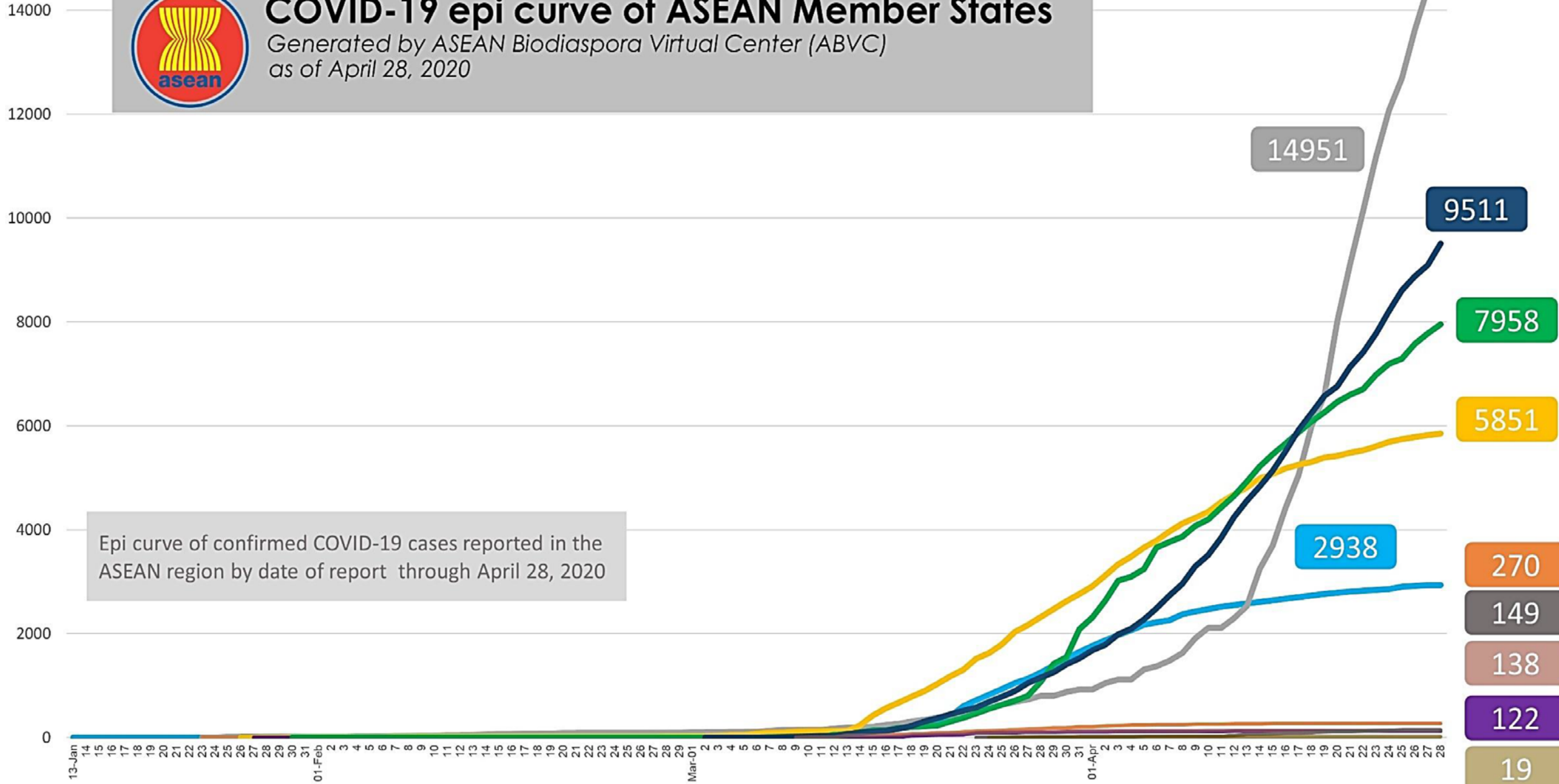
<sup>1</sup> Categorization determined based on the 7-day rate-of-change in new case reports.

<sup>2</sup> Doubling time is calculated retrospectively based on cumulative case reports as of April 28, 2020 at 9:00AM EST.



# COVID-19 epi curve of ASEAN Member States

Generated by ASEAN Biodiaspora Virtual Center (ABVC)  
as of April 28, 2020



— Thailand — Singapore — Vietnam — Malaysia — Cambodia — Philippines — Indonesia — Brunei — Myanmar — Lao PDR

# 아세안 대응

- **2020년 2월 14일**: ASEAN Collective Response to the Outbreak of Covid19 의장(베트남) 성명발표(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공조체제확립, 확산방지, 보건협력(방역, 검진, 격리, 치료), WHO와의 긴밀한 공조)
- **2월 19일부터 보건위기에 대한 공조체제 발동**: ASEAN Center of Military Medicine, Network of ASEAN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Defense Experts, ASEAN Defense Ministers, ASEAN Emergency Operations Centre(EOC) Network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ASEAN Risk Assessment and Risk Communication Centre, ASEAN Coordinating Council Working Group on Public Health Emergencies 등
- ASEAN Biodispora Virtual Center(ABVC) (새로운 확진자 추가가 없는 나라(캄보디아 4월 12일 이후, 라오스 4월 12일 이후, 브루나이 4월 19일 이후, 베트남 4월 24일 이후 등) 발표)
- ASEAN Center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AHA Center)
- ASEAN 인권기구(AHRD): 보건 기본권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한 Covid-19 ASEAN Response Fund 운영
- ASEAN은 Covid19로 인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그들의 권리를 유지, 확대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 **Special ASEAN Summit(4월 14일)**: 2월 14일 의장성명의 내용 확인과 보건협력 강화의 재인식
- **Special ASEAN+3(4월 14일)**: 공공보건협력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기본 인적교류 허용, Covid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
- 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WTO,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등 작용
- **ASEAN은 Covid19로 인한 보건위기가, 경제위기로, 경제위기가 사회정치적 위기로 진전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지역적 차원에서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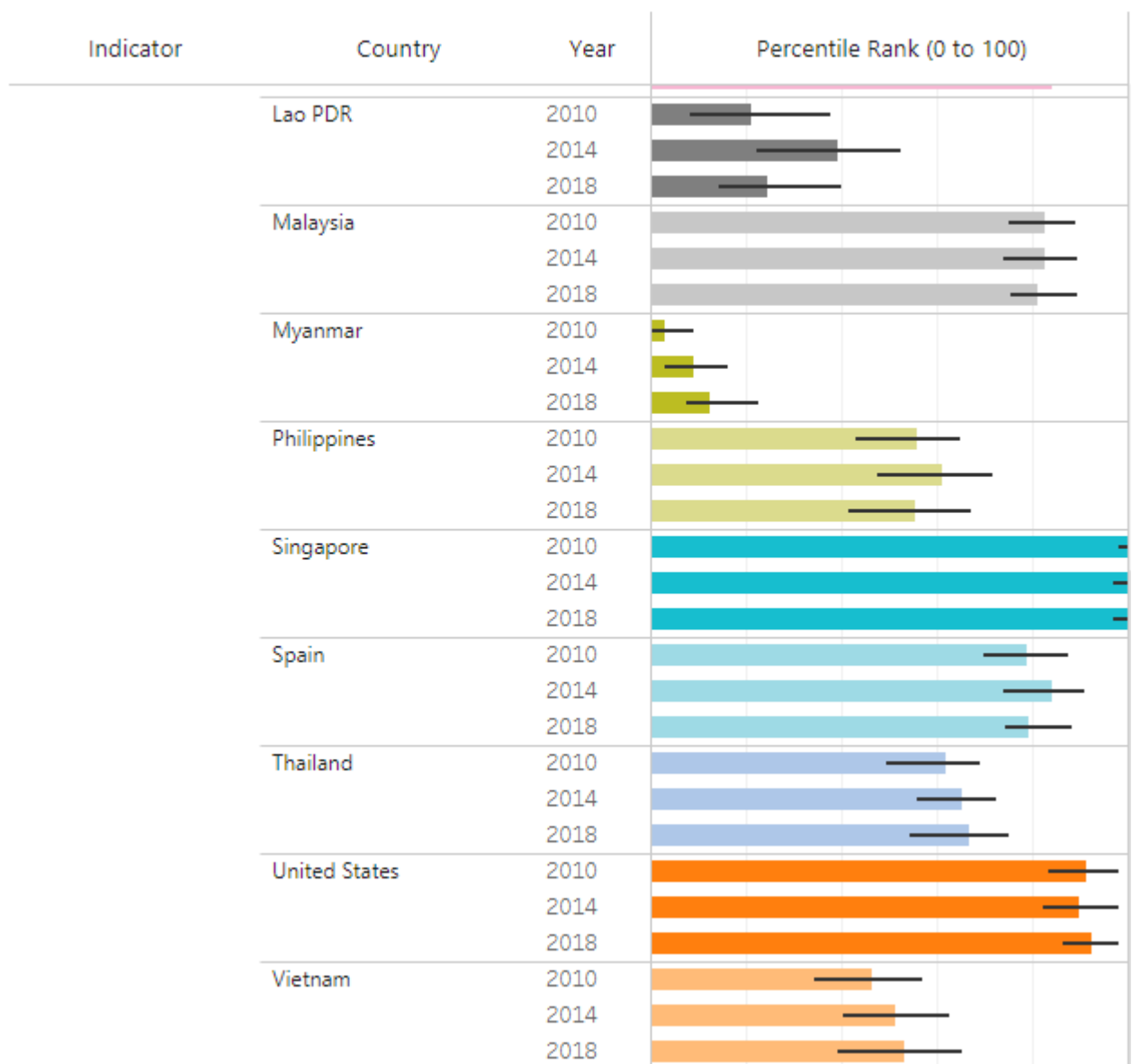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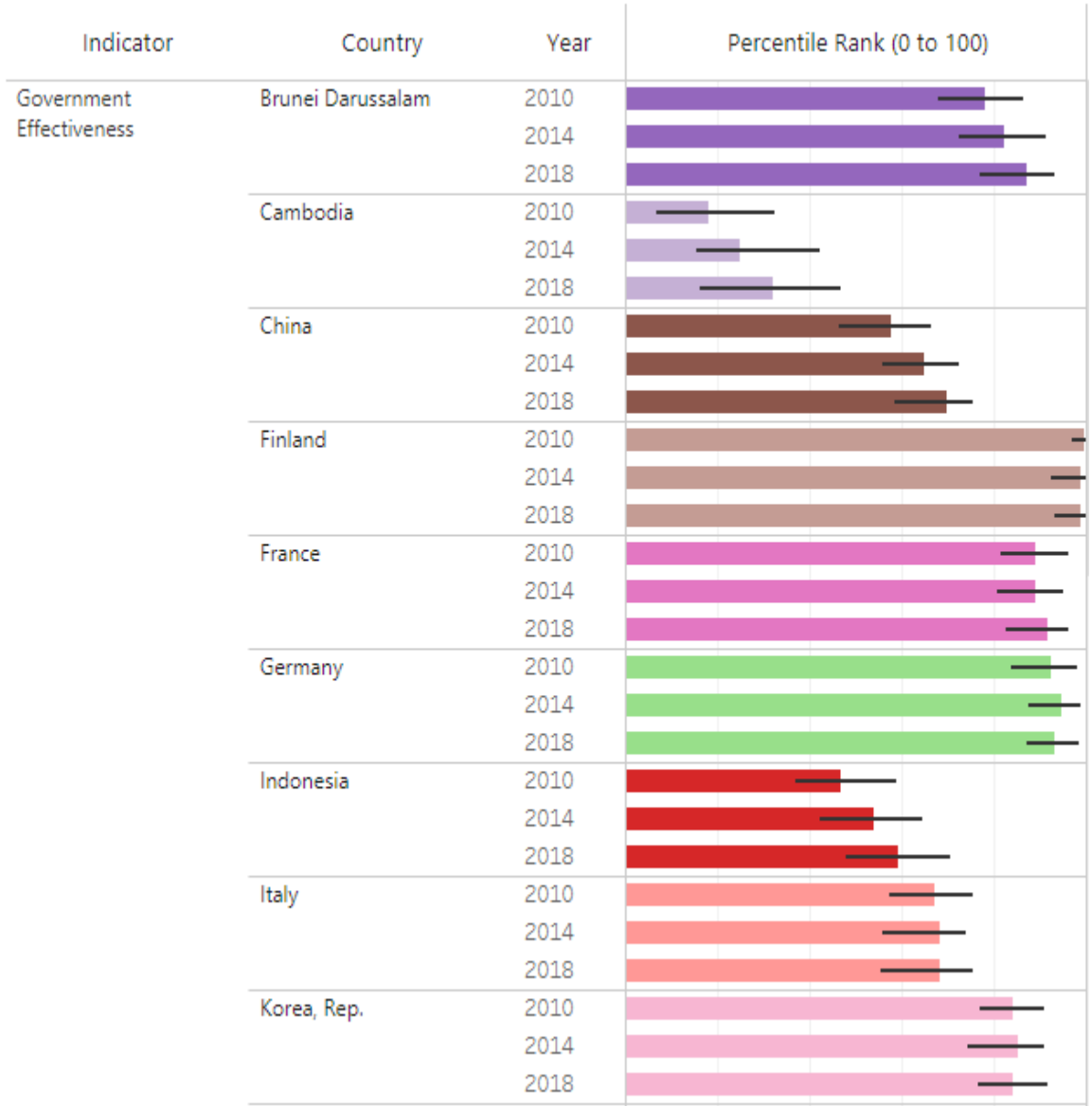


3월31일 아세안과 중국 화상회의

# 아세안의 대응: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 **중국과 아세안의 가까운 지리적, 긴밀한 경제적 관계.** 우한에서 온 중국인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확산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중국은 3월 중순부터 아세안에게 적극적인 지원(진단키트, 마스크, 대응기금 등). 3월31일 아세안-중국 긴급 화상회의(7개 사항 합의) 그러자 동시에 미국도 아세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4월 1일 아세안 공중보건 워킹 그룹 협력체와 화상회의 시작(코로나19발생이후 USAID로 1,830만 달러 긴급지원).
- 미국은 연일 '우한 바이러스' 라고 일컬으며, 중국과 WHO를 공격.
- 중국은 마스크 외교, Health Silk Road라 명명하면서, 적극적인 보건 지원, 그러나 중국은 아세안에게 남중국해와 메콩 이슈에서 독단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중국이지만, 아세안에게 있어 중국은 언제나 견제의 대상
-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는 코로나19상황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남. 당분간 아세안은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아세안에 대한 경쟁적 지원(?)을 관리하면서, 지역 이익을 만들어내고자 함.
- 지금까지 아세안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의장국 베트남의 긍정적 효과

# 아세안 회원국의 거버넌스 지수(정부효과성) 수준: World Governance Index에서



# 동남아 국가별 대책 강도 비교: 입국통제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역간 이동제한

동남아 각 국가는 입국통제를 다양한 수준에서 실시함.

**강한 수준의 입국제한 조치:** 말레이시아(1월중순부터), 베트남(2월초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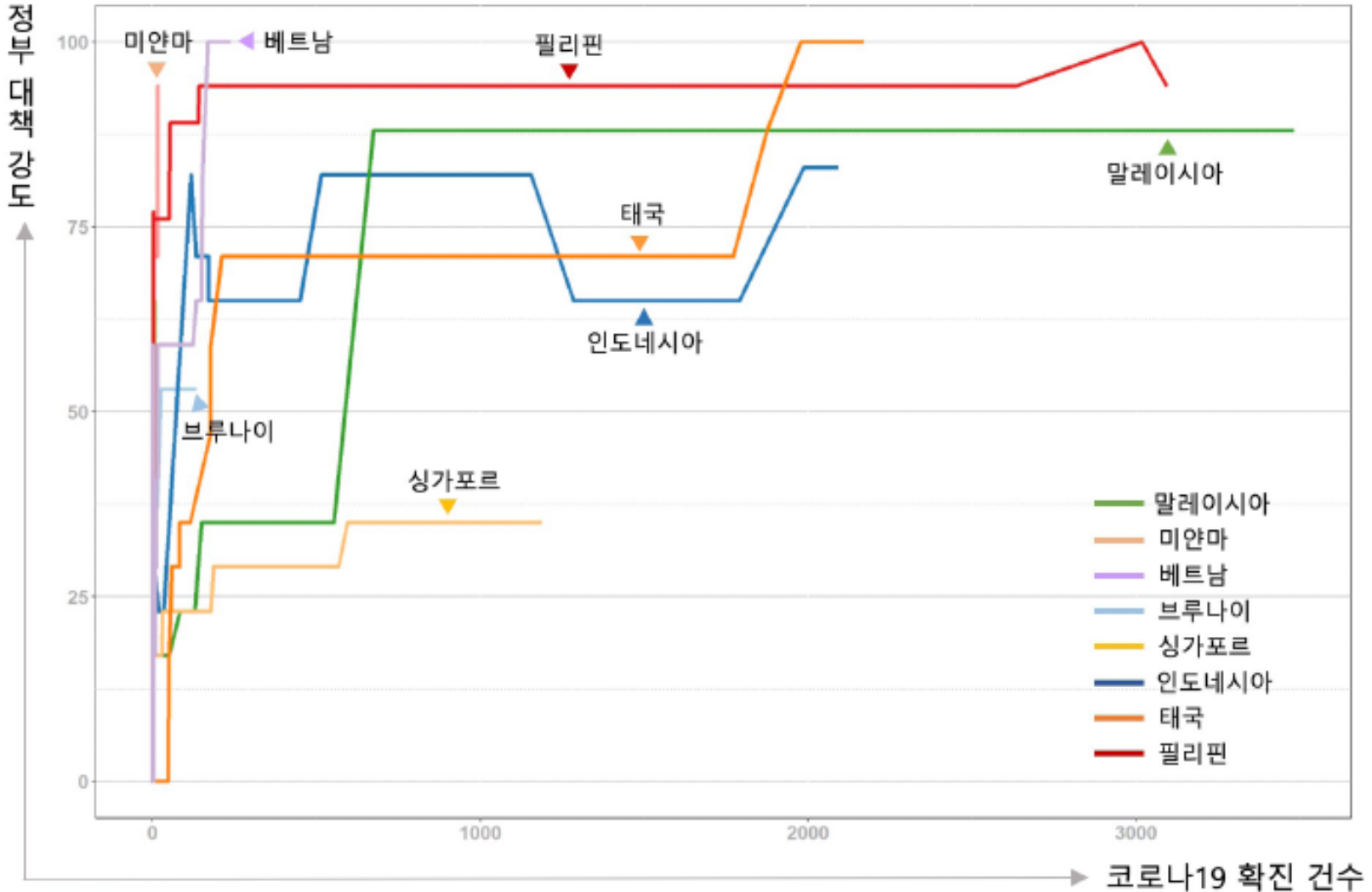
**중간 수준의 입국제한 조치:** 싱가포르(느슨하게 시작하다가 1월말에 중간으로), 2월초에 시작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3월말 캄보디아와 미얀마/

**느슨한 수준의 입국제한 조치:** 라오스(3월중순부터)

**중국입국통제를 전면으로 실시한 국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중국입국은 허용하되 검사와 격리 의무를 시행한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팬데믹 선언 이후 각 국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역간 이동 제한을 실시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재인용: 전동연 이슈페이퍼 1)

# 비슷한 환경에서 왜 베트남은 태국보다 성공적으로 이 사태를 극복하고 있는가? 초기 대응의 중요성

## • 태국사례

- 1월 13일 첫 확진자 발견(중국 밖 처음으로 발견된 국가)
- 3월 초순 무에타이 경기장과 술집에서 집단감염 확산
- 3월 22일 수도 방콕 등의 상업시설 영업금지, 그러자 도시지역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농촌지역으로 대거 이동해 오히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
- 3월 26 국가비상사태 선언, 주민 외출과 기업의 활동자제
- 4월 3일 야간 통행금지령
- 4월 4일 국제선 항공편 운항금지
- 4월 10일 주류 판매 금지 조치
- 4월 13-15 송골란 행사 금지
- 뿌라웃의 딜레마: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할 것인가 경제활동을 위해 완화할 것인가

## • 베트남사례

- 사망자 0명의 성공적인 방역사례
- 초기부터 고강도 정책
- 2월 1일 중국 국경 폐쇄
- 2월 3일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임시휴교령
- 3월 18일부터는 모든 비자발급 중지
- 4월 1일-15: 외출 제한령을 전국에 발령, 공공장소에서 3명 이상 모이는 것 금지, 필수업종 제외하고 모든 점포나 시설 봉쇄
- 4월 24일 이후 환자 발생이 없었음
- 4월 23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5월 1일 쌀수출 금지 해제, 정상적인 쌀수출



# 싱가포르는 왜 성공사례에서 벗어났는가? 시민권자(영주권자)와 이주자 사이의 차별

- 1월 23일 첫 확진자 출현. 초기 대응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로 회자되었지만, 4월초부터 개학(3월23일)과 이주노동자 밀집지에서 발생 이후 성공사례로부터 멀어짐.
- 사스 사태 이후 Disease Outbreak Response System Condition (Dorscon) 체제 확립
- 2월 초에 Dorscon은 오렌지 단계인데, 현재도 계속 오렌지 단계임.
- 인구 584만명 중에 약 2만명이 확진자. 1월 23일에서 4월 22일 1만명 되는데 13주, 2만명으로 증가하는데 단 2주 소요
- 이주노동자 기숙사 약 32만명 중 5.3%인 1만6998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
- 싱가포르의 경제 및 사회 운영에 대한 반성 및 성찰필요

DORSCON ALERT LEVELS (Disease Outbreak Response System Condition)				
	GREEN	YELLOW	ORANGE	RED
Nature of Disease	Disease is mild <b>OR</b> Disease is severe but does not spread easily from person to person (e.g. MERS, H7N9)	Disease is severe and spreads easily from person to person but is occurring outside Singapore. <b>OR</b> Disease is spreading in Singapore but is (a) Typically mild i.e. only slightly more severe than seasonal influenza. Could be severe in vulnerable groups. (e.g. H1N1 pandemic) <b>OR</b> (b) being contained	Disease is severe <b>AND</b> spreads easily from person to person, but disease has not spread widely in Singapore and is being contained (e.g. SARS experience in Singapore)	Disease is severe <b>AND</b> is spreading widely
Impact on Daily Life	Minimal disruption e.g. border screening, travel advice	Minimal disruption e.g. additional measures at border and/or healthcare settings expected, higher work and school absenteeism likely	Moderate disruption e.g. quarantine, temperature screening, visitor restrictions at hospitals	Major disruption e.g. school closures, work from home orders, significant number of deaths.
Advice to Publ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 socially responsible: if you are sick, stay at home</li> <li>• Maintain good personal hygiene</li> <li>• Look out for health advisori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 socially responsible: if you are sick, stay at home</li> <li>• Maintain good personal hygiene</li> <li>• Look out for health advisori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 socially responsible: if you are sick, stay at home</li> <li>• Maintain good personal hygiene</li> <li>• Look out for health advisories</li> <li>• Comply with control measur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 socially responsible: if you are sick, stay at home</li> <li>• Maintain good personal hygiene</li> <li>• Look out for health advisories</li> <li>• Comply with control measures</li> <li>• Practise social distancing: avoid crowded areas</li> </ul>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공동체적 가치의 효과

### • 말레이시아 사례

- 1월 26일 첫 확진자 발견. 2월27일-3월1일 대규모 이슬람부흥집회로 감염확산 기폭제(브루나이, 인니,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무슬림 참여, 역내 확산 계기)
- 3월 6일 Tan Sri Muhyiddin Yassin 새로운 총리체제의 실험대/3월 18일부터 전국 이동제한령, 5월 12일까지 지속할 의지
- 라마단과 르바란의 영향 최고조
- 이슬람금융의 영향: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모델,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의 특징. 이번에도 이러한 효과는 나타날 것인가를 주목
- 2020년 Doing Business 지수에서 말레이시아 80.1점수,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 2위, 1위 싱가포르 86.2점.

### • 인도네시아 사례

- 초기대응의 미흡. 신속대응팀 국가재난방지청(BNPB)가동
- 4월 7일 정부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 발령. 예배당 내 종교활동 금지(가능한 집에서 예배)
- 라마단 기간(4월24일-5월24일): 대규모 사회적 제약 시행 연장/ Mudik 금지(MUI발표)/6월에 정점이 될 것으로 예상,7월정상화 예측
- 인구 100명당 의사 숫자와 병상 숫자가 적은 나라의 하나(Puskesmas라는 보건의료체계의 기본단위)
- 이슬람단체의 적극적인 극복 활동
- 경기부양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5월 초 예산부족으로 재무부는 국채발행, 이슬람개발은행, 세계은행, ADB, AIIB 등과 대출협상
- 조코위 대통령과 서부자바 주지사, 자카르타 주지사 사이의 대응방법의 이견과 경쟁: 정치적 경쟁



동남아 최대사원, 자카르타 이스티크랄 모스크  
라마단(금식기간)에는 종교모임이 더욱 활성화 됨



Mudik의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기  
MUI는 올해 무딕(Mudik)을 하람으로 규정

#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왜 '과격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선거권위주의체제의 모습

- 1월말 첫 확진자 발견이후 3월까지 한 자릿수 기록
- 중국 이외에서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발생한 첫 국가
- 1월과 2월에는 중국과 한국의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입국 제한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치 없었음.
- 그러나, 3월 12일 이후 빠른 속도로 확산, 5월초 동남아에서 현재 상대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높은 국가에 해당됨
- 3월 9일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메트로 마닐라 내 각급 학교에 휴교령
- 3월 14일 적색경보 2단계, 3월 15일 마닐라 포함 루손 섬 전체 봉쇄조치단행, 5월 15일까지 유지할 예정
- 군경을 투입하여 위반자를 구금하는 필리핀 정부의 통제수위가 높아짐. 5월5일 부터 정부를 비판한 민영방송 ABS-CBN 라디오 TV와 라디오 송출 중단(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지속)
- 취약한 의료시스템, 개방적 민주적 통제를 위한 거버넌스의 취약성. 강력한 봉쇄 조치로 사회 취약계층의 불안한 삶의 지속과 폭력적 저항의 가능성이 존재
- 보건위기→경제위기→사회위기→무질서와 폭동사태로 이어질 가능성, 따라서 경제위기로 가시화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임.



# '사람' 중심의 신남방정책의 지역적 글로벌적 효과

- 한국정부는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 발표이후, 한-아세안관계를 '공동체적' 수준으로 격상시켜, 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1월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계기로 최고조로 분위기가 상승되었으나, 올해 코로나19로 분위기가 상당히 저조해짐..
- **제5차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방역 및 보건'을 우선 정책으로 '사람중심'의 신남방정책을 재활성화하고자 함.
- **4월14일에 있어서 ASEAN+3 화상회의**: K방역모델의 적극적인 지원약속,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수 기업인 이동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 대응
- **아세안 내 각 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보건 지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경우: 현대차 국가재난방지청(BNPB)에 방역복 5만 세트 지원/현대엔지니어링, Pertamina에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전달/현대차와 그랩 공동으로 의료진 무료 셔틀 서비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대우조선해양 진단키트 1만회 분량 전달 등/ 베트남 삼성 및 한국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아세안과 한국의 '가치'공유의 중요성과 현실의 벽**: 사람과 평화 그리고 공동번영, 경쟁적인 미중 세계질서 속에서 아세안과 한국은 적어도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음. 그러나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 힘'이 아세안과 한국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한계라고 볼 수 있음.